

벨하 신앙 고백 워크숍 디자인
THE CONFESSION OF BELHAR
A WORKSHOP DESIGN



CONFESSION OF
BELHAR

벨하 신앙 고백 특별위원회에서 제작

Produced by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Belhar Confession

공동체와 함께하는 **Come Join Us in Community**

Based on the Confession of Belhar, Article 2.

Suggested tune: McKee, CM

By James Hart Brumm

©2010 Wayne Leupold Editions Inc. Used by permission.



1. 공동체와 함께하는
주님 몸된 교회
우리 모두 하나될 때
현실로 자라네.
2. 친구와 함께하라고
거리서 외치네
예수님의 사람들은
불화를 끝내네.
3. 주고받는 주님사랑
밖으로 나타내
우리가 나누는 빵과
최선의 의무로.
4. 하나님 이름을 고백
세례와 그의 잔
똑같진 않아도 묶고
세움을 위하여.
5. 성령의 도구로 모두
자유케 하였네
예수님이 사신 삶을
나누는 공동체.

Come join us in community;
the Church of God's own Son
grows into a reality
when we all live as one.

Come join us as we show our friends
and shout out in the streets
how every hate and discord ends
for people Jesus meets.

Come join us as we manifest
God's love in give and take,
in duties that bring out our best,
and in the bread we break.

Come join us to confess God's Name,
God's baptism, God's cup.
We do not need to be the same
to bond and be built up.

With every tool the Spirit gives
we set all people free
to share the life that Jesus lives
joined in community.

벨하 신앙 고백 워크숍 디자인

THE CONFESSION OF BELHAR— A WORKSHOP DESIGN

이 워크숍 디자인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 전체 그룹과 함께 학습할 때 찬송가, 기도 및 자료의 발표는 전체 그룹에 모여서, 읽기와 토론은 6-8 명의 소그룹으로 나누십시오. 워크숍은 1 회, 50-60분 세션 또는 각각 15-20분 세(3)개의 세션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 디자인을 세 가지 세션에 사용하기 위해 첫 번째 세션은 소그룹 질문, 토론 및 전체규모 그룹의 나눔은 첫 번째 세트 이후에 마칩니다. 두 번째 세션은 소그룹 질문, 토론 및 전체 그룹의 나눔은 두 번째 집합 이후에 종료됩니다. 일부 핵심 용어는 텍스트에 굵은 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급되는 즉시 정의됩니다.



필요한 자료들 *Resources* (참여자들에게 충분하게)

성경 Bibles

유인물 (혹은 브로셔, [\[redacted\]](#) 에서 주문, 혹은 다음에서 다운로드 [\[redacted\]](#))—벨하 고백서 Belhar Confession

필기 도구 Pencils or pens

개회 찬송 “공동체와 함께하는”

1-2절 (맥키 곡조에 맞추어 sung to McKee CM, the tune for #440, *The Presbyterian Hymnal*)

(노래 가사는 위에 실려 있다.) ©2010 Wayne Leupold Editions Inc., Used by permission.

아파타이드 *Apartheid*, 아프리카 단어 "나뉘"의 의미는 법률 체계를 나타낸다.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은 1948년부터 시작된 National Party의 권력으로부터이다. 인종차별 정책에 따라, 남아프리카의 흑인 대다수는 심각하게 제한된, 그리고 백인 소수의 지배로 시행되었다.

I 시작하면서 Introduction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죄가 교회의 화합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부터의 삶을 도둑질하여 부당한 시스템을 만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아프리카의 네덜란드 개혁 선교교회 회원 및 지도자들은 인종 차별 정책에 따라 이러한 질문에 직면하였다. 1948-1994년 아파타이드는 인종 차별적인 계층화 된 사회를 형성했다. 가장 연한 피부 색깔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보호와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세 가지 범주로 분리되었다. 각 피부 색깔들은 "흰색"범주에서 벗어났고 그들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와 기회가 줄어들었다. 인종분리는 법에 의해 수립되고 폭력을 통해 시행되었다. 비 백인 시민들은 끊임없이 침입하는 경찰의 존재와 일상 생활에서의 간섭으로 인생을 살았다. 향의하는 자들에게는 형벌, 투옥,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여야 했다.

인종 분리는 또한 개혁 교회의 삶에서도 행해졌다. 백인 네덜란드 개혁 교회(DRC)는 아파타이드 정책을 지지하는 정교한 성경 해석과 이데올로기를 창안했다. DRC는 세 개의 "선교"교회를 형성하여 각각의 인종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개혁 선교 교회를 "색깔"(biracial)로 지정된 사람들로 나누었다.

이는 법률에 의해 위임된 것으로, 교회가 이 분리에 공모하여,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집에 누구나 올 수 있음을 거부하고 복음이 위협을 당하게 됨으로서 세계교회가 아파타이드의 지위를 "고백의 상태"로 명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주었다.

네덜란드 개혁 선교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상황과 맞서 신학적 및 실천적으로 씨름하였다. 그들 투쟁의 한 결과는 1980년대 초기 벨하 신앙고백의 출현이었다.

A status confessionis, 말 그대로 "고백의 상태"는 서로 다른 시간에 교회 역사안에서 복음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기 위하여 교회가 일어나도록 고백을 요구하는 끔찍한 상황을 본다. 이중에 디히트리 본회퍼는 나치 독일의 교회상태를 고백하였었다. 루터교 세계 연맹과 세계개혁 교회 연합이 아파타이드를 고백의 상태로 지명하기도 하였다. 어떤 상황이 '고백의 상태'로 이름이 불리워질 때, 교회 전체가 깊이 생각하고 상황의 심오한 본질과 함께 교회와 사회의 회개와 변화의 필요성을 분별함을 갖게 된다.

남아공 개혁교회(URCSA)는 아파타이드였던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계승하여 Belhar 고백을 세계 개혁교회 가족들에게 알렸다. 이는 하나의 선물로서 화해와 정의의 화합을 주제로 거룩한 행동, 변화, 및 생명을 향한 전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소그룹에서 벨하 신앙고백서 1 번과 2 번을 소리내어 읽으시오.

소그룹 토론 질문

1. 벨하 신앙고백서는 **삼위일체론**으로서 - 하나님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 - **교회론적**으로 -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제1조와 제2조에서 어떤 증거가 보입니까?
2. 제2조의 이러한 진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 a. 교회는 "하나님과 또한 서로가 화해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 b. 화합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속하여 세워지도록 달성하여야 합니다"
 - c. 하나님 백성으로서 화합은 우리가 경험, 실천, 및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 사항들이 교회에서의 경험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비슷한가요?
3. 제2조는 화합을 주제로 합니다. 남아프리카 아파타이드의 맥락에서 ("떨어짐"또는 "분리"), 사람들은 법과 예배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 선교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파타이드는 또한 사람들과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시킴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아파타이드(Apartheid)는 아프리카어로, 한 곳만의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분리라는 말은 서로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모두 일반적입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자는 신자들에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1-3). 제2조에서 교회가 서로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이것을 고백할 용기를 갖고 평화의 유대감으로 교회의 단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 또는 두개의 진술을 찾아보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당신의 소그룹과 나누십시오.

소그룹의 생각을 전체 그룹과 나누기

Sharing of small group insights in the Large Group

(참고: 워크샵은 전체 그룹에서 공유한 후 일시 멈출 수 있습니다.)

찬송 Hymn: “공동체와 함께하기”

3절 혹은 1-3절

(참고: 전체 또는 일부 워크샵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자의 결정은 어느 시점에서 찬송가 중 어느 절수를 사용할지 결정하는데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II 교회는 신앙을 고백함 The Church Confesses Faith

장로교회는 신앙 고백적인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신조를 고백**한다. 교회의 고대와 보편적인 신조인 사도신경과 니케아(Nicene)신조를 사용한다. **신앙고백**은 교회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의 공적인 선언"이다.¹ 신조와 신앙고백은 "교회를 사람들의 공동체로 확인시켜주고 그 신념과 행동의 지침을 알려준다."² 장로교회는 루터교, 로마가톨릭, 성공회, 및 정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신앙고백적 유산을 함께한다.

벨하 신앙고백 제 3 조는 화해, 특히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키기에 집중한다.

신앙고백서에는 "화해 reconciliation"라는 단어가 현재 포함되지 않고 있다.

"화해 reconcile"라는 단어가 있는 16 개의 예에서 사용된 경우는, 거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다루고 있다. 질문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신학적 및 교회적 개념이나 실재론이 우리 스스로의 고백적인 이해의 중심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다. 그렇다면 화해, 특히 사람과 집단에게 관련된 화해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교회는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소그룹에서 벨하 신앙고백 3조를 소리 내어 읽으시오.

소그룹 토론 질문 Small Group Discussion Questions

1. 마태 복음 5장 9절과 5장 13~1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개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3조가 가정 한대로 전체 교회를 위한 세상에서의 삶을 향한 것입니까? 만약 전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의미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¹ "The Confessional Nature of the Church," xi-xxx, in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I, *Book of Confessions*.

²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II, *Book of Order*, G-2.0100.

2. "하나님 생명의 말씀과 영"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여" "교회가 새로운 순종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와 세상을 위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여 당신이 편안함을 느낄 때에 소그룹과 그 경험을 나누십시오.
3. 요한계시록 21장 1~5절을 읽으십시오. 북미 교회에서 "인종과 피부색에 근거한 사람들의 강제 격리"를 우리는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정된 분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대부분과 우리 교회의 대부분은 단일 문화적이며 단일 인종, 피부색, 문화, 및 언어로 구분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실 새로운 창조물과 새로운 하늘, 및 새로운 땅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소그룹의 생각을 전체 그룹과 나누기

Sharing of small group insights in the Large Group

(참고: 워크샵은 전체 그룹에서 공유한 후 일시 멈출 수 있습니다.)

찬송 Hymn: “공동체와 함께하기”

3-5절

III 교회의 정의와 목적 **Justice and the Ends of the Church**

20 세기 초반에 교회의 목적에 대한 목록은 그 목표가 미국장로교회의 이전 교단의 헌법 초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이 목록은 **Presbyterianism** 전체에 걸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큰 목적"이라고 제목을 붙이어³ 미국장로교 헌법의 일부로 나타나고 있다.

이 6 개의 목적 중에서 다음 2 개는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위해 일하도록 목표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 사회 정의의 촉진
-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

³ *Book of Order*, F-1.0304.

이 목적은 성서적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난한자, 과부, 고아, 및 외국인을 돌보도록 명령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포로들, 억압받는 자들의 자유를 위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설교 하시며 선포하신다. 다양한 성서적 고백과 헌법에 의한 가르침에 기초하여, 장로교인은 정의와 공의에 심오한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소그룹에서 제 4 조와 제 5 조를 소리 내어 읽으시오.

교회의 큰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처, 양육과 영적 교제;
거룩한 예배의 유지;
진리의 보전;
사회정의의 촉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 (F-1.0304, 규례서)

소그룹 대화 질문 Small Group Discussion Questions

1. 시편 82편 1~5 절과 누가복음 4장 16~21절을 읽으세요. 이 구절들과 제4조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론(이미지 또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및/또는 신학(이미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을 비교하세요. 두 그리스도론, 혹은 신학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어떻게 다른습니까?
2. 제4조의 '우리는 믿는다' 부분에서 마지막 4가지 사항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교회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회중에서의 삶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이나 당신이 잘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교회와 여기에 묘사된 교회들과의 비슷한 점 혹은 다른 점들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큰 목적에 묘사 된 것과 여러분의 회중에는 어떤 차이 혹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의 이유를 당신은 어떻게 봅니까?
3. 신앙고백서를 읽었을 때, 여러분 자신의 회중을 대상으로서 이 사실의 의미와 잠재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장로교회의 삶에 어떤 의미와 잠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 그룹 나눔 Large Group Sharing

폐회 기도 *Closing Prayer*

L: 우리는 하나의 믿음을 나눕니다.

P: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L: 한 영혼과 한 마음입니다.

P: 한 분의 하나님과 창조주,

L: 하나의 성령으로 충만 하셔서,

P: 한 번의 세례를 받았으며,

L: 한 떡을 먹고 한 잔에서 마시고,

P: 하나의 이름을 고백하고,

L: 한 주님께 순종하며,

P: 하나의 목적으로 일하고 하나의 희망을 공유합니다.

L: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됩니다.

P: 그리스도의 위상, 새로운 인간성으로 세워졌습니다.

L: 서로의 짐을 알고 나누어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P: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하고 서로를 세우며,

L: 서로를 훈계하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P: 우리는 의를 위해 서로 고난을 겪습니다.

L: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P: 우리는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화합과 화해와 정의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벨하 신앙 고백 Confession of Belhar

1986년 9월¹

1.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작부터 이 일을 해오셨고, 끝까지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2. 우리는 온 인류 가족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교통하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화목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명백히 나타나야 한다;
- 그러므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자 의무이다. 연합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진정으로 추구되고 찾아져야 하는 실체이기도 하다; 연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세움을 입어야 한다;
- 이 연합은 사람들과 집단 간의 분리와 증오와 미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하신 죄라는 것과, 따라서 이러한 연합을 해치는 어떠한 것도 교회에서 용인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명백히 보여져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의 삶을 함께 경험하고, 실천하고, 추구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내어 놓아야 하며; 한 믿음을 나누고, 한 부르심을 가지며,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며; 한 하나님과 아버지를 가지며, 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 세례를 받으며,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시며, 한 주님을 고백하고, 한 주님께 순종하며, 한 목적을 위해 일하고, 한 소망을 나누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고; 서로의 짐을 알고 그 짐을 함께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깨우치고, 서로를 위로하며; 의를 위해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연합을 위협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항하여 함께 싸운다.

- 이 연합은 억압이 아닌 자유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기회, 배경, 신념,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다양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화목으로 말미암아 가시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섬기고 풍성함을 누리는 기회들이 된다;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신앙이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리들은 어떤 것이라도 거부한다:

- 자연적인 다양성이나 사람들 사이의 최악 된 분열을 절대화 함으로 교회의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연합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며, 또는 교회분열을 조장하는 교리;
-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상 서로로부터 분리되어 화해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줄로 이러한 영적 연합이 유지되고 있다고 고백하는 교리;
- 참으로 귀중한 선물인 이 가시적 연합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부정하는 교리;
- 명백하게 또는 은연 중에라도, 출신이나 다른 어떠한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요소가 교회의 성도 자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리.

3.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의 메시지를 교회에 맡기셨다;
- 교회는 이 땅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는 화평케 하는 존재이기에 복되다 일컬어지며, 교회는 그 말씀과 행동으로 의가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증거한다;
-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및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불화와 미움, 갈등과 반목의 권세도 정복하셨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및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사회와 세상을 위한 생명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 아무리 기독교를 표방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인종에 기초한 강제적 분리가 소외와 미움과 반목을 신장시키고 고착 시키는 곳에서는 이 메세지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유익한 사역이 방해를 받는다;

- 복음에 호소함으로 그러한 강제적 분리를 합법화하려 하고, 순종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편견과 두려움과 이기심과 불신 때문에 미리 화목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가르침은 어느 것이라도 이데올로기 및 거짓 교리로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인종과 피부색의 차이에 따른 강제 분리를 찬성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사역과 화목 된 삶을 미리 방해하고 약화시키는 모든 교리를 거부한다.

4.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공의와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고 싶어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해 오셨다;
- 하나님은 불의와 반목이 가득한 세상에서 특별히 궁핍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 하나님은 억눌린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자신의 사역을 행하도록 교회를 부르신다;
- 하나님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주신다;
- 하나님께서는 학대 받는 자들을 도우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시고, 불의한 자의 길을 막으신다;
- 하나님에게 있어서 순수하고 때문지 않은 경건은 고통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 하나님은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고 공의를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
-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어떠한 곤경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그들을 지지해야 한다. 이것은 여러가지를 의미할 수 있지만 특별히 다른 것들 중에서 교회가 어떤 형태의 불의에 대항해서라도 증언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하나님의 것인 교회는 주님께서 서신 곳에 서야 한다. 즉 불의에 대항하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자들과 함께 서야 한다;
-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해를 끼치려는 모든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대항하여 증거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이름으로 여러 형태의 불의를 정당화하려 하고, 또한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거부하지 않으려 하는 교리들을 정당화하려는 이데올로기는 어떤 것이라도 거부한다.

5. 우리는 교회가 비록 정부와 인간의 법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금하고, 처벌과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행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믿는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이시다.

오직 한 분 이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Endnote

1. 이것은 이 신앙 고백이 1986년에 남아공 화란 개혁 선교 교회 총회에 의해 채택되었을 바로 그 당시의 신앙 고백 원문 (Afrikaans: 남아공의 공용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음) 을 번역한 것이다. 1994년에, 화란 개혁 선교 교회와 아프리카 화란 개혁 교회가 연합하여 남아공 연합 개혁 교회 (URCSA)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포용적 (inclusive) 언어로 된 본문은 미국 장로교 신학 및 예배 부서에 의해 마련되었다.